

# 이재명-윤형선, 김동연-김은혜, 안철수-김병관 맞붙는다

〈인천 계양을〉

〈경기지사〉

〈성남 분당갑〉

## 6·1 지방·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송영길 서울시장후보 출마하면서 이재명, 공석된 계양을 전략공천 홍준표-서재현, 대구시장 후보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1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다. 지역구 의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식이 된 계양에 이 후보가 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3주만에 치러지는 선거를 이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 맞서기 위해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지역에서 25년 간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인천시 의사회장을 지낸 '지역밀착형' 인사를 내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당시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출마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기지사를 노린다.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및 정책 연대를 한 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큼, '이재명의 경기도'를 계승해 '김동연의 경기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입'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의 패권을 노린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며 공보·홍보 업무를 도맡았다. 김 후보가 매체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니 덩달아 인지도도 올라갔다.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안 위원장 박민식·장영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성남 분당갑에 당의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남상공회의소와 이매동아

파트 거주 대표단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을 살렸다.

김병관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재선을 노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당선된 바 있으나 21대 총선에 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안 위원장이 IT기업 '안랩'을 창업한 것처럼 김 전 의원도 게임기업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내 분당갑은 기업인 간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일찍잡치 경선을 끝내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전 의원은 지역 재도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 밀려 물거품이 된 대통령의 꿈 '고향' 대구시장 당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심산이다.

고향에 돌아온 백전노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서재현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의 힘지인 대구에서 정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서 후보는 지난 7회 지선에서 동구정장 선거,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심을 얻고 있는 후보 서재현"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손실보상 발표 결과 비판적 시각 필요”

###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도약 힘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발표할 결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호정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손실보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a'를 지급기로 결정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당초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원+a'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 통과시켜 이미 집행한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4조원+a'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제기로 '이해 충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2000년에 보안기업 테르텐을 창업해 20년간 경영을 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일감을 수주한 것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김승호 기자 bada@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취임사에서 '통합' 빠졌다 지적에 尹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통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규범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의 과정”이라며 “그래서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된다”며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저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유와 충돌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가 양보되면, 거기에는 독재가 존재하는 것이거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인들의 연대의식, 자발적 참여 등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尹 대통령, 이틀째 ‘취임외교’ 강행군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등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방한한 외교사절단과 이틀째 ‘취임외교’를 펼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포스텡 아르상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

통령, 조지 푸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안 사우디아라비아 PIF(국부펀드) 총재 겸 아랍코 회장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과도 접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타국 경축사절단과 일본 의원단 단체접견까지 이날 공개된 외교 일정만 6개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취임외교 일정

으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며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 했고, (윤 대통령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를 꼭 방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박정익 기자